

# 충북지역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과 활용

박경목\*

- 
- I. 머리말
  - II. 독립운동가 현황과 발굴 검토
  - III.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현황
  - IV.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 V. 맺음말
- 

## I. 머리말

충북지역은 그간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크게 주목 받는 지역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의 양적 분포면에서 전체 유공자 12,775명 중 충북출신이 423명으로 전체 대비 3.3%밖에 되지 않으며, 이남 지역 가운데 경북, 충남, 경남, 전남, 경기, 전북, 강원, 충북, 서울, 제주 순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sup>1)</sup>.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측면에서도 충북 전체 160여 개소의 사적지 가운데 멸실된 곳이 60여 개소, 훼손된 곳이 60여 개소로 전체 대비 75%가량이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거나 원형이 변경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up>2)</sup>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1) 국가보훈처 공훈록 참조(2013. 5월 현재)(<http://www.mpva.go.kr>).

이러한 원인은 우선 그간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가 학계나 일반대중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내에서 지역인들에게서조차 회자되거나 관심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주요인일 것이다. 지역의 역사나 문화는 그것을 가꾸고 향유하는 지역민들의 역사인식이나 문화인식의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삶의 일상에서 위와 같이 도외시 되었던 지역의 역사나 문화는 이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제3의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그리고 지역의 명운을 판가름하는 도시마케팅의 주요 소재로, 지역을 알리는 도시브랜드의 기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일과 여가의 패턴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노동계의 주 5일제 정착, 교육계의 주 5일 수업 정착, 현장체험학습 교육 중시, 문화활동의 증가 등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정부는 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지역의 문화 등을 개발·발굴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축제나 도시관광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대표적으로 홍길동의 고장 장성, 춘향이의 고장 남원, 허균의 고장 강릉, 빗고을 광주, 윤봉길의 고향 예산, 김좌진·한용운의 충절의 고장 홍성,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전곡, 나비로 유명한 함평 등등 하나의 상징 또는 이미지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여 알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역사·문화 수준을 제고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근대역사인 독립운동사의 인문학적 기반과 이와 연관된 사적지 또는 기념시설 등은 지역의

2) <‘기록만 남은’ 청주 독립운동 성지>, 《충청타임즈》. 2013. 2. 27일자.

3) 각 도시별 시티투어 버스, 농촌의 각종 체험 마을, 도시 축제 등.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근 그 활용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주목받고 논의 되고 있다.<sup>4)</sup>

충북지역에서도 최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나 충북발전연구원 등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각 기념사업회, 시민단체 및 유족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조망, 그리고 충북지역 내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sup>5)</sup> 아마 근래 들어 지역과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오늘의 이 학술세미나도 이러한 관심과 열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충북지역 내 보존·관리되고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의 몇 가지 현황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활용의 방안이나 구체적인 활용 전개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우선 충북지역 독립운동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본 독립운동 사적지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 사적지 별 성격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에서는 2007~2008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 현황과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해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 <충북 3.1운동 기념시설 정비해야>, 《연합뉴스》, 2008. 2. 27일자.  
 <청주 우시장터에 3·1 만세운동 표지석 설치>, 《뉴스시스》, 2009. 3. 1일자.  
 <괴산지역 사회운동사적지 알림판 설치해야>, 《뉴스시스》, 2010. 8. 26일자.  
 <청주 3.1공원 정비 1주년을 맞아>, 《동양일보》, 2011. 2. 28일자.  
 <독립운동가 조동식 선생 재조명 필요>, 《뉴스시스》, 2012. 9. 21일자.  
 <괴산 충북 독립만세운동 근원…호국 성지>, 《아시아뉴스통신》, 2013. 3. 1일자.  
 <우리 지역으로 떠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 《내일신문》, 2013. 3. 4일자.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정부나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기념사업회 및 유족회 등에서 이미 선행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며, 혹여나 이 선행적인 노력들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Ⅱ. 독립운동가 현황과 발굴 검토

### 1.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현황

충북지역 독립운동사는 주로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에 의해 10여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왔고<sup>6)</sup>, 그 결과로 현재에는 지역의 관심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가 지역적 공동의 관심사로 주목받으면서 지

- 
- 6) 최근 박걸순 교수의 주요 충북 독립운동사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 『독립운동계의 3만 정순만』, 경인문화사, 2013.
  -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 「단양의 독립운동가 유적현황과 활용방안」, 《중원문화연구》16,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1.
  -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15,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 「홍범식 순국 100년, 그 역사적 기억과 기념」, 《괴산문화》18, 괴산향토사연구회, 2010.
  - 「신팔균의 생애와 민족운동」, 《역사와 담론》57, 호서사학회, 2010.
  - 「3·1운동공판기록을 통해 본 충북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사상」, 《중원문화연구》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9.
  - 「이상실의 민족운동과 후인 논란」, 《중원문화연구》10,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6.
  -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7, 충북학연구소, 2005 등.

난 2008년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sup>7)</sup>가 완성되었다.

또한 충북발전연구원 김양식 선생님의 의해 독립운동사 사적지 또는 관련 시설·기념물 등을 지역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사적지 활용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다.<sup>8)</sup>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 지난 2005년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공훈자가 350명<sup>9)</sup>에서, 2013년에는 423명으로 총 73명, 29.9%나 증가되었다.<sup>10)</sup> 이는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이, 독립운동가가 적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가 덜 진척되었기 때문인 것임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내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제 충북지역 내 자치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 기념사업회 및 유족들과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과 현양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2009년 청주 3·1 공원의 재정비 사업 당시 청주시와 시민사회가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하였던 것<sup>11)</sup>이나 시민단체의 청주 우시장터 3·1운동 기념표지석

7)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8.

8) 김양식 선생님의 최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 《충북 Issue&Trend》7, 충북발전연구원, 2012.

- 「장소마케팅을 통한 충북이미지 제고방안」, 《충북 Focus》29, 충북발전연구원, 2011.

- 「충북 향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충북 Issue&Trend》6, 충북발전연구원, 2011.

- 「충북지역 근대종교문화유산 현황과 특성」,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충북지역 역사기념시설 현황과 개선방향」,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등.

9) 박결순,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7, 충북학연구원, 2005, 66쪽.

10) 국가보훈처 공훈록 참조. (<http://www.mpva.go.kr>)

11) <청주 3·1공원 정비사업 준공>, 《연합뉴스》, 2010. 3. 1일자.

설치<sup>12)</sup> 등 협력과 협조에 의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방식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에 구체적인 보존의 방향이나 향후 활용 대안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하고 논의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방향의 설정과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충북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명확한 실증과 그 특징에 대한 인문학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문학적 기반 없이 당장의 활용과 이용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사적지의 활용은 단순히 있는 시설의 활용이 아니라, 그 사적지가 그곳에 있게 된 역사적 이유와 의미 등이 학술적으로 충분히 밝혀지고, 그것이 대중에게 충분히 공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독립운동의 제 양상과, 그리고 충북 출신 인물들의 국내외 독립운동 활약상이 상세히 파악되어야 한다.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는 순절, 3·1운동, 의병전쟁, 광복군, 광복회, 헤이그 특사, 의열단, 창의단, 밀양경찰소 투탄 등등 세분하면 29개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다만 이를 크게 보면 의병전쟁, 3·1운동,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 신간회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의 6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sup>13)</sup>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과 이 지역 출신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은 충북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는 현재 423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앞서의 언급처럼 전체 독립운동가 대비 3.3%이며, 타 도에 비교해도 전체에서

---

12) <청주 우시장터에 3·1 만세운동 표지석 설치>, 《뉴시스》, 2009. 3. 1 일자.

13) 박걸순,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7, 충북학연구소, 2005 참조.

아주 낮은 편이다.<sup>14)</sup> 그러나 숫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충북의 인구가 한국 전체 5,100만 가운데 156만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1번째이며, 전체대비 3.1%의 비율<sup>15)</sup>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비율은 현재 인구현황 대비 오히려 0.2%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423명 독립운동가의 운동 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 독립운동 유공자 운동 계열별 분포 현황】<sup>16)</sup>

| 운동계열  | 인원          | 비율    | 운동계열 | 인원   | 비율   |
|-------|-------------|-------|------|--|------|
| 의병    | 94명         | 22.2% | 만주방면 | 22명  | 5.2% |
| 애국계몽  | 3명          | 0.7%  | 중국방면 | 7명   | 1.7% |
| 의열투쟁  | 4명          | 0.9%  | 일본방면 | 5명   | 1.2% |
| 3·1운동 | 181명        | 42.8% | 임시정부 | 14명  | 3.3% |
| 국내항일  | 45명         | 10.6% | 광복군  | 14명  | 3.3% |
| 학생운동  | 11명         | 2.6%  | 기타   | 23명  | 5.4% |
|       |             |       |      | 청년외교단 4명,<br>군자금모집 5명,<br>순절 6명, 미주7명,<br>인도네시아 1명 |      |
| 합계    | 423명 (100%) |       |      |  |      |

14) 2013. 5월 현재 국가유공자로 공훈 받은 독립운동가는 총 12,775명 (국가보훈처 공훈록, <http://www.mpva.go.kr>).

【광역시도별 독립운동유공자 분포 현황】

|    |      |        |      |        |      |
|----|------|--------|------|--------|------|
| 지역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 인원 | 340명 | 863명   | 471명 | 1,057명 | 423명 |
| 지역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제주   |
| 인원 | 944명 | 1,889명 | 892명 | 725명   | 471명 |

15) 충청북도 도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인용.

16) 국가보훈처 공훈록 참조(<http://www.mpva.go.kr>).

위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충북지역에서는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이 181명으로 전체 대비 가장 높은 4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중기·후기에 걸친 의병전쟁으로 94명, 2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대한제국의 비극』을 남긴 맥켄지가 증언하였듯이 ‘제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의 의병전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또는 항일결사 등을 통한 국내항일도 45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만주·중국·일본·미주 등 해외 활동 독립운동가들도 포함 42명, 9.9%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 충북인들은 국내 각지는 물론 해외 전역으로도 진출하여 다양한 방법과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검토

그러나 위 통계를 현재로서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는 이제 막 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있을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지역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에 따라 지금의 숫자보다 많아질 것이며, 그것이 두 세배의 규모일지 아니면 지금의 숫자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일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다.

일단 본고에서는 예시적 방법론으로 우선 1차 자료로 남아 있는 수형기록 카드를 일일이 대조해 보는 작업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 가능 인물들을 발굴해 보고자 한다. 수형기록 카드는 일제강점기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에 대한 기록 카드이다. 경찰에 피체되었을 당시와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이 남겨진다. 그러나 거의 모두 멸실되었고 현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 중 총 6,000여 장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내내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수감자 숫자에 비하면 아주 극소량만

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sup>17)</sup>

다만 이를 통해서라도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수감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남아있는 수형기록 카드상에 충북이 본적지이거나 충북에서 출생하였거나, 충북에 거주하였던 인물을 뽑아보면 총 118명이 발견된다.

이 중 기존에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광재기, 권동진, 권병덕, 권희목, 김복진, 김을경, 김인수, 김태수, 박원근, 서상경, 손순홍, 신석구, 신흥식, 어윤희, 연병호(연병학), 유재영, 이건양, 이병철, 이용준, 장양현, 장현근, 전좌한, 정해용으로 총 23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어윤희(1880~1961)의 경우 개성지역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로서, 흔히 개성지역 인물로 알고 있었으나, 실은 충북 충주 출신이다. 그는 3·1운동 당시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유관순과 함께 수감되었고, 모진 고문에도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견뎌내면서 유관순과 함께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 옥중만세투쟁을 주도한 인물이다.<sup>18)</sup>

3·1선언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 충북지역 출신 민족대표 6명 가운데 권동진, 권병덕, 신석구, 신흥식, 정춘수 5명의 수형기록 카드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정춘수는 후일 친일행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 23명의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9, 국사편찬위원회, 1992년 참조.

원본 데이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음.

18) 「어윤희 등 2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11.

강염심, 「어윤희(1880~1961)의 민족사상과 독립운동」, 『3·1운동기 민중항쟁과 서대문형무소』, 개관11주년기념학술심포지엄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09 참조.

19) 손병희의 수형기록 카드는 발견하지 못함.

【민족대표 33인 중 중복출신 인사 및 어윤희 수형기록 카드】 20)

|            |            |
|------------|------------|
|            |            |
| <p>권동진</p> | <p>권병덕</p> |
|            |            |
| <p>신석구</p> | <p>신흥식</p> |
|            |            |
| <p>정춘수</p> | <p>어윤희</p> |

위 23명 가운데 특히, 연병호의 경우 그간 수형기록 카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그 기록이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다.<sup>21)</sup>

2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9, 국사편찬위원회, 1992년 참조.

수형기록 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이하 수형기록 카드 동일).

21) <증평군, 지역 역사인물 연병환 선생 재조명>, 《충북일보》, 2013. 3. 8일자.

연병호는 1919년 5월초 이병철·조용주 등과 함께 대한민국청년의 교단을 결성하여 임시정부에 국내정보 전달, 독립자금 송금 등 임시정부를 국내에서 지원하고,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활동이 1919년 11월 발각되어 연병호는 3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출감 후 상해로 망명하여 한국국민당(1929년) 조직, 신한독립당(1934년) 조직, 한국민족혁명당(1935년) 등을 조직하여 해외독립운동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행적으로 1937년 1월 다시 피체되어 국내로 압송, 6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43년 출감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초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 제헌국회의원이 됐고 그 뒤 제선의원이 되었던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sup>22)</sup>

한편, 그의 4형제 연병환, 연병호, 연병주, 연병호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sup>23)</sup> 만형 연병환(1878~1926)은 1919년 간도 용정에서 일어난 3·13 만세시위운동에서 독립운동가를 후원하였다가 일제 간도총영사관 경찰에 피체되어 2개월의 처벌을 받고, 이후 상해로 이동하여 1920년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다.<sup>24)</sup>

이러한 대표적인 공적에도 불구하고 수형기록 카드가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그간 수형기록 카드의 보존율이 미미하여 멸실된 것으로만 파악하였으나, 실은 연병호가 일제강점기에 주로 ‘연병학(延秉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연병호’라는 이름으로는 수형기록 카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연병환·연병호선생 선양사업회(연창흠 집필), 『애국지사 연병환·연병호』, 중평군, 2013 참조.

23) <우리 지역으로 떠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 《내일신문》, 2013. 3. 4 일자.

24)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제1권 9, 63쪽. 이러한 독립운동을 최근 인정받아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2011년 11월 생가 근처에 공적비가 세워졌다.

【연병호 수형기록 카드】



위 독립 유공자 23명과 정춘수를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94명의 인물은 어떤 사람들인가? 틀림없는 것은 그들이 일제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실이다. 그 수감 사유가 이들의 독립운동 여부를 판가름 하는 관건일 것이다. 그간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간 독립운동가는 아닐까.<sup>25)</sup>

일단, 94장의 수형기록 카드 가운데 소위 ‘국가총동원법 위반’혐의로 피체되어 수감된 기록은 25명이다. 이들이 단순히 징집이나 징용 또는 물자 수취를 피하다가 수감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거부 투쟁을 펼치다가 수감되었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25명을 독립운동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그럼 이제 남은 69명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수감 시 죄명은 수형기록 카드 상에 대부분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이다. 이러한 죄명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 씌웠던 소위 ‘사상범’의 죄명으로 3·1운동이나 독립선언서 배포, 사회운동·학생운동·노동운동 및 국내항일, 해외항일활동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죄명의 수감 인물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을

25) 이 가운데에는 독립운동 행적은 인정되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공훈 받지 못한 벽초 홍명희와 같이 잘 알려진 인물도 포함되어있다.

펼치다가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69명에 대한 개별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충북 출신 수감자 인적사항】<sup>26)</sup>

(미 공훈자)

| 연번 | 이름     | 본적지<br>출생지<br>주소지 | 생년월일       | 연도<br>연월일  | 형량    | 비고                      |
|----|--------|-------------------|------------|------------|-------|-------------------------|
| 1  | 강근희    | 영동                |            | 1934.6.17  |       |                         |
| 2  | 강태걸    | 음성                | 1884.5.17  | 1942.4.8   |       |                         |
| 3  | 강팔석    | 보은                |            | 1937.12.24 |       |                         |
| 4  | 고강순(여) | 음성                | 1909.10.6  | 1943.3.31  | 1년    |                         |
| 5  | 김두수    | 영동                | 1903.6.2   | 1933.7.11  |       |                         |
| 6  | 김병선    | 충주                | 1910.1.1   | 1936.11.27 |       |                         |
| 7  | 김영규    | 괴산                | 1890.11.10 | 1938.6.6   | 8개월   | 잡화상                     |
| 8  | 김영진    | 괴산                | 1913.12.30 | 1931.12.1  |       |                         |
| 9  | 김용찬    | 영동                | 1903.9.6   | 1934.7.20  |       |                         |
| 10 | 김천고성   | 단양                |            | 1938.12.15 |       |                         |
| 11 | 김하진    | 청주                | 1913.6.26  | 1941.8.30  |       |                         |
| 12 | 김학원    | 청주                |            | 1930.5.26  | 5년    |                         |
| 13 | 남정진    | 청주                | 1911.6.9   | 1932.6.3   | 2년    |                         |
| 14 | 도영학    | 청주                | 1913.6.27  | 1942.9.19  |       |                         |
| 15 | 민공호    | 영동                | 1911.1.18  | 1934.8.16  | 1년6개월 |                         |
| 16 | 민금봉(여) | 청주                | 1913.1.7   | 1930.3.2   | 훈계방면  | 서울시내여학생<br>만세시위         |
| 17 | 민원식    | 영동                | 1905.3.14  |            |       |                         |
| 18 | 박노진    | 제천<br>청주          | 1905.12.1  | 1944.7.17  | 3년    |                         |
| 19 | 박만봉    | 옥천                | 1908.8.13  | 1942.3.2   | 4개월   |                         |
| 20 | 박소순(여) | 청주                | 1915       | 1934.5.25  |       | 여공                      |
| 21 | 박신삼(여) | 충주                | 1903.6.28  | 1920.4.5   | 6개월   | 31운동1주년<br>배화여고<br>만세시위 |

2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9, 국사편찬위원회, 1992년 참조.

|    |     |          |            |            |       |                          |
|----|-----|----------|------------|------------|-------|--------------------------|
| 22 | 박원서 | 단양       | 1880.1.28  | 1942.11.6  |       |                          |
| 23 | 박인섭 | 청주<br>보은 | 1909.8.27  | 1932.10.24 |       | 훈도                       |
| 24 | 박화서 | 진천       | 1908.5.6   | 1932.5.2   |       |                          |
| 25 | 백공필 | 청주       | 1901.1.2   | 1919.8.28  | 1년    | 3·1운동                    |
| 26 | 서정약 | 충주       | 1898.4.30  | 1930.5.26  | 5년    |                          |
| 27 | 성옥손 | 제천       | 1908.      | 1936.6.24  |       | 농회고용원<br>農會雇員            |
| 28 | 송남운 | 괴산       | 1882.7.26  | 1940.12.16 | 1년    |                          |
| 29 | 신석일 | 보은       | 1901.11.26 | 1920.4.5   |       |                          |
| 30 | 신영우 | 청주       | 1903.10.2  | 1939.4.30  |       |                          |
| 31 | 신영호 | 청원       | 1902.6.16  | 1919.5.5   | 10개월  | 3·1운동                    |
| 32 | 심용운 | 영동       | 1911.3.1   | 1934.5.15  |       |                          |
| 33 | 안병구 | 괴산       | 1922.10.28 | 1942.2.20  | 8개월   |                          |
| 34 | 안현현 | 음성       | 1900.11.2  | 1933.8.26  | 1년6개월 |                          |
| 35 | 엄행원 | 청주       | 1915.9.20  | 1935.3.23  |       | 중앙보고                     |
| 36 | 여오일 | 영동       | 1888.12.10 | 1933.7.29  | 1년    |                          |
| 37 | 연부산 | 괴산       | 1898       | 1919.8.8   | 8개월   | 3·1운동                    |
| 38 | 오영소 | 보은       | 1910.6.6   | 1934.4.5   |       |                          |
| 39 | 우찬구 | 음성       | 1917.6.6   | 1934.4.5   |       | 경성기숙회<br>京農寄宿會           |
| 40 | 유석철 | 충주       | 1908.11.21 | 1935.6.17  |       |                          |
| 41 | 유인술 | 옥천       | 1908.6.30  | 1939.3.8   | 10개월  |                          |
| 42 | 유재근 | 보은       | 1913.1.28  | 1943.12.22 | 6개월   |                          |
| 43 | 이능중 | 제천       | 1911.4.18  | 1931.4.7   | 3년    |                          |
| 44 | 이병노 | 청주       | 1907.2.6   | 1933.10.9  |       |                          |
| 45 | 이부원 | 청주       | 1907       | 1931.10.25 |       |                          |
| 46 | 이삼철 | 괴산       | 1926.4.13  | 1942.9.16  |       | 점원                       |
| 47 | 이상순 | 진천       | 1914.12.1  | 1943.11.24 | 1년    |                          |
| 48 | 이수영 | 청주       | 1911.10.13 | 1932.6.20  | 2년6개월 | 치안유지법,<br>출판법,<br>전신법 위반 |
| 49 | 이인원 | 청주       | 1917.8.19  | 1942.7.14  | 2년    |                          |
| 50 | 이종무 | 옥천       | 1915.2.15  | 1934.6.4   |       | 보성전문학교<br>1학년            |
| 51 | 이종석 | 제천       | 1894.1.19  | 1942.9.22  | 3년    |                          |

|    |              |          |            |            |       |                          |
|----|--------------|----------|------------|------------|-------|--------------------------|
| 52 | 이종옥          | 진천       | 1910       | 1934.5.18  |       |                          |
| 53 | 이희수          | 영동       | 1910.2.8   | 1933.7.11  |       | 신문기자                     |
| 54 | 임각규          | 충주       | 1924.10.28 | 1942.12    | 1년    |                          |
| 55 | 장 준          | 영동       | 1896.9.25  | 1928.8.26  |       |                          |
| 56 | 정계원          | 진천       | 1913       | 1934.5.18  |       | 화신백화점<br>점원              |
| 57 | 정윤희          | 충주       | 1909.6     | 1930.7.24  | 10개월  |                          |
|    |              |          |            | 1931.8.24  | 1년    | 재수감                      |
| 58 | 정재달          | 진천       | 1895.11.14 | 1930.4.12  | 미수감   | 고등수배                     |
| 59 | 정종근          | 음성       | 1909.9.9   | 1930.1.29  |       | 치안유지법,<br>보안법,<br>출판법 위반 |
| 60 | 정진복          | 음성<br>충주 | 1901.3.2   | 1930.5.26  |       | 인쇄공                      |
| 61 | 정태식          | 진천       | 1910.5.13  | 1936.11.1  |       | 경성제국대학교수<br>사회주의 운동      |
| 62 | 조순범<br>(조성원) | 단양       | 1891.3.3   | 1942.9.22  | 2년    |                          |
| 63 | 조영식          | 청주       | 1911.5.21  | 1934.1.26  | 2년6개월 |                          |
| 64 | 조준기          | 충주       | 1890.2.1   | 1926.7.26  |       |                          |
| 65 | 최판흥          | 영동       | 1899.8.5   | 1934.7.20  | 2년    |                          |
| 66 | 추고경          | 영동       | 1906.3.15  | 1933.7.11  |       |                          |
| 67 | 현학손          | 충주       | 1909.7.6   | 1939.3.8   | 10월   |                          |
| 68 | 홍명희          | 괴산       | 1880.5.23  | 1919       |       | 3·1운동                    |
|    |              |          |            | 1930.12.12 |       | 재수감                      |
| 69 | 홍재식          | 음성       | 1898       | 1931.9.7   |       |                          |

이 가운데 몇몇은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3·1운동, 학생운동, 만세시위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였던 혐의로 피체되어 수감되었다.<sup>27)</sup>

이 검토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간 충북 출신 독립운동

27) 물론 독립운동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상세한 활동내역과 수감이후의 행적, 해방 이후의 거취문제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표면적으로만 살펴본 것이다.

가 중 어윤희 외에는 여성이 전혀 없었는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명의 여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고강순(1909, No. 4)은 음성 감곡에 거주하면서, 소학교 선생님께서 민족교육을 선도하다가 피체되어 소위 ‘불경과 보안법위반,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1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sup>28)</sup>

민금봉(1913, No. 16)은 청주 남이 출신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호응으로 서울시내에서 1930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각급 학교 여학생 5,000여 명이 일제히 만세시위를 벌인 운동현장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400여 명의 여학생이 대대적으로 피체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때 이화여자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민금봉도 피체되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sup>29)</sup> 이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시위운동은 여성독립운동 단체인 ‘근우회’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계획된 것으로 1930년대 초 여성들만의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으로 의미가 크다.

【고강순, 민금봉 수형기록 카드】



박소순(1915, No. 20)은 청주 사주 출신으로, 1930년대 공장 노동자

28) 「고강순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42. 12. 28.

29) <불기소된 여학생 서문서에서 재검거>, 《중외일보》, 1930. 2. 26일자.

로 근무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에서 빚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처우와 조선인 차별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sup>30)</sup>

박신삼(1903, No. 21)은 충주 산척 출신으로, 배화여고 학생으로 재학중이던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투쟁으로 배화여고 학생들이 기숙사 뒷산에서 격렬한 만세시위운동을 펼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배화여고 학생 24명이 전격 구속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형 6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받는 등 평화적인 만세시위치고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때 박신삼도 구속된 24명 중의 하나로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sup>31)</sup> 여학교 내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운동으로 다른 만세시위운동에 비하면 전무후무하게 높은 형량을 받은 사건 중의 하나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독립운동이었다.

【박소순, 박신삼 수형기록 카드】



여성 외에도 특기할 만한 인물로, 정태식(1910, No. 61)은 진천 읍내 출신으로, 경성제국대(현, 서울대학교) 법문학부 조교로 들어가 교수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펼친

30) 「삼택녹지조 적화공작사건 검거 건」, 경기도 경찰부문서, 1934. 8. 31.

31) 「이수희 등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0. 4. 5.

이재유와 함께 학생운동·노동운동에 참여하여 경성제국대 내 학생 조직을 맡는 등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펼치던 중 1936년 5월 피체되어 그해 11월에 5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정태식, 홍명희 수형기록 카드】

|               |            |
|---------------|------------|
|               |            |
| <p>정태식</p>    | <p>정태식</p> |
|               |            |
| <p>정태식-뒷면</p> | <p>홍명희</p> |

이외에 상세히 관련 기록을 조사해 보면 69명의 면면을 모두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지역 독립운동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조속히 독립운동의 여부와 상세한 행적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능성이 있다면 서훈작업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충북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선행되어 인문학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충북지역 독립운동사는 보다 넓고 공고해 질 것이며, 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위에 관련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현황

충북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양상은 독립운동 사적지의 분포 현황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즉, 충북지역 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비율이 3·1운동, 의병전쟁, 신간회, 학생운동, 청년운동, 해외 독립운동 등의 순으로 분포하듯이 사적지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08년 조사된 총 155개소의 독립운동 사적지 가운데 3·1운동 사적지가 63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의병전쟁 사적지로 51개소, 그리고 나머지 사회운동 11개소, 학생운동 8개소, 해외독립운동 8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사적지의 현황을 살피기 위한 2013년 4월 중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미 2008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팀에 의해 충북지역 내 독립운동 사적지가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금번 답사를 통해 사적지를 새롭게 밝히거나, 그 의의를 조망하는 것은 당초부터 답사의 목적이 아니었고, 다만 사적지 현장의 분위기와 보존 상태, 이용 현황 등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시간상 제약으로 충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었기에 주로 현장에 일정한 형태의 기념물이 남아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제천과 괴산, 증평, 진천, 청원 등지의 사적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청원군의 조동식 관련 묘역과 생가지 터, 출생지 터와 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에 설치된 괴산의 보훈공원 내 충열탑 등은 추가로 살펴보았다. 특히 조동식과 관련해

---

3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8, 765쪽.

서는 출생지에 대한 고증과 봉화횃불만세운동지에 대한 위치 고증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1. 제천

### 【자양영당, 박약재, 아사봉, 순국선열 묘역(의병골)】

제천은 의병의 격전지로서 관련 사적지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자양영당과 함께 유인석 거주지, 유중교 거주지가 복원되었으며 의병 전시관과 제천의병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매우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다.<sup>33)</sup> 이곳 자양영당 인근은 1908년 김춘쇠 의진에 포군으로 참여한 권순명(1876~미상)의 집터로 확인되었고, 평양진위대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의병을 초모하여 의병장으로 활동한 박여성(1860~1908)의 묘소도 바로 옆 충주박씨 선산에 있다. 가능하면 자양영당 설명문에 이러한 사실도 간략히 병기하면 제천의 의병사가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나아가 인근에 서상렬(미상~1896)묘소와 이소응(1852~1930)묘소 등이 있었으나 접근하기가 어려워 둘러보지는 못했다.

한편 이러한 생가복원과 전시관, 기념탑 등의 시설들은 당시의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간선도로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있어 찾기가 불편하여 방문하는 이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 기념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자녀와 함께 도란도란 의병에 관한 이야기 하며 역사를 체험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고 운영하는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

33)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장담 457.



제천에는 자양영당 외에도 의병과 관련된 사적지가 많이 있다. 후기의병 시 제천향교가 불타자 위패를 옮기고, 의병론자들이 본거지로 사용하였던 박약재<sup>34)</sup>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 1907년 이강년의 『운강창의일록』이 편찬되었고, 1915년 유인석 서거시 빈소가 차려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원형대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다만 마을 뒷산 중턱으로 약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흡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무인경비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 시내 쪽에는 의병의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아후봉(아사봉)<sup>35)</sup>에 설명문으로나마 의병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어 후기의병 시 치열했던 제천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또한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순국선열묘역(일명 의병골)<sup>36)</sup>이 있어 제천의병에서 활약한 홍사구(1878~1896), 최육영(1854~1919), 김상태(1864~1912), 이정규(1864~1945) 4인의 의병과 제천의병진에 참여하였다가 박달재 전투에서 생포되어 1896년 2월 26일 제천 고장숲에서 순국한 제천의병 7의사-김용이, 김재관, 추성손, 우재봉, 우규하, 박원용, 오원용-를 모시고 있다. 한적한 산 중턱에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고,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묘역 하단에는 추모행

34) 제천시 두학동 231. 본래 진주 강씨 문중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조선 중기에 세운 강당 건물이다.

35) 제천시 중앙로 2가 26-4, 중앙공원.

36) 제천시 교암동 산 28-9.

사에 필요한 각종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도  
모되고 있었다.



## 2. 괴산 · 증평

【홍범식 고택, 홍명희 거주지 터, 보훈공원 내 충열탑,  
연병호 생가, 연병환 공적비】

괴산지역은 1910년 한일강제 병합 시 금산군수로 있다가 비분강개  
하여 자결·순국하였던 홍범식(1871~1910) 고향이자, 그의 아들 홍  
명희(1888~1968)의 고택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괴산군에  
서는 홍범식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대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읍내의 홍범식 고택<sup>37)</sup>은 2008년 편의시설과 보완공사를 완료하  
여 주차장, 화장실, 해설사 안내 부스 등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었다. 또한 주변의 보훈공원과 개심사, 괴산읍내 장터 등과 멀지않은  
거리에 있고, 시내와 외곽으로 나가는 갈림길에 있어 많은 이들의 방  
문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보훈공원은 홍범식 고택 바로 옆 야산 정상에 2012년 12월 조성되  
었다. 일제강점기 괴산출신 독립운동가 65명을 기리는 충열탑과 해방

37)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50-1.

이후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피산출신 무공수훈자 107명을 기리는 충혼탑이 서 있다.

그리로 바로 앞 피산 시장터는 1919년 3월 19일, 24일, 29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진 현장답게 지금도 시장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북잡거리며 찾는 곳이 되었다. 특히 피산군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벌어진 현장으로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선양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적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 국립피산호국원, 특전사 고공낙하훈련장 등을 유치하면서 주말 시내에 많은 사람이 붐비는 활기찬 거리로 변화되고 있다.<sup>38)</sup>



홍범식 고택에서 약 4km 내외 떨어진 제월리에는 홍범식의 묘소와 그 아랫동네 홍명희가 살았던 묘막인 홍명희 거주지가 있다.<sup>39)</sup> 그 곳은 현재 일반 가정이 들어서 생활하고 있으나, 기초석이나 기둥들이 원형대로 남아있어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홍범식 일가의 내용을 모두 잘 알고 있었으며, 묘소나 거주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풍산 홍씨의 선산에 모셔져 있는 홍범식의 묘는 피산군에서의 대대

38) <피산 충북 독립만세운동 근원...호국 성지>, 《아시아뉴스통신》, 2013. 3. 1일자.

39) 피산군 피산을 제월리 365. 제월리 산수골.

적인 관심에 걸맞지 않게 잡풀이 무성하고 그 비문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편이었다.

한편 제월리에는 홍명희의 거주지에서 멀리 보이는 구릉 중간에 조선중기 성리학자 이구(1613~1654)의 문집간행용 판목이 보관되어 있는 아담한 건물이 있어 눈에 뜨인다. 그리고 제월리에서 충주방향으로 약 3~4km 떨어진 괴강관광지 인근 충민사<sup>40)</sup>에 김시민 장군(1554~1592)을 배향하고 있어, 이 일대가 나라의 위기 시 충절 의사들의 기운이 서려있는 곳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주변 자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



증평은 과거 괴산의 영역으로 연병호(1894~1963)생가가 위치하고 있다.<sup>41)</sup> 이곳은 1986년 복원된 것으로 1996년과 1998년 보수사업이 추진되어 영당과 삼문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영당 앞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커다란 공훈비 1기와 각각의 참여 단체에서 세운 듯한 작은 추모비 3기, 도합 4기의 비가 영당 앞에 있고, 더욱이 홍살문이 우두커니 세워져 있어 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초라하지만 있는 그대로 조성해 놓은 생가지를 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독립을 위한 길을 선택하였던 연병호 지사를 생각하게 되지만,

40) 괴산군 괴산을 능촌리 57.

41)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5.

그 옆 영당의 시설들은 오히려 그러한 감회를 반감시키는 것이었다. 차라리 연병호에 대한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사진자료를 실은 설명판 몇 개를 더 세우는 것만 못한 인상이었다.

이 생가지 입구 갈대밭에는 최근 공훈을 인정받은 연병호의 만형 연병환(1878~1926)의 공적비가 단을 높게 드리우고 서 있다. 그간 조명되지 않았던 연병환에 대한 내용으로 반가운 일이긴 하였으나, 찾는 이가 없어 접근하는 길에는 갈대만이 우거지고, 오히려 커다란 공적비가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 3. 진천

#### 【이상설 생가, 신팔군 거주지, 한봉수 의병장 항일의거비】

진천하면 ‘생거진천(生居鎭川)’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다리’가 떠오른다. 특히 농다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고 있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천에 위치한 이상설(1870~1917) 생가<sup>42)</sup>는 1988년 복원, 정비되어 생가와 사당인 숭렬사, 동상, 초혼묘, 기념관 등 관련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여 이 역시 진천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

42)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134-2.

든 시설이 여유롭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념관이 잠겨 있어 제 역할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바로 앞에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상설 생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바로 이 지점이 서울→대전방향으로 대전 61km 지점인데, 고속도로 옆에 크게 이상설 생가 안내판을 세워 고속도로를 오가는 모든 이들이 이상설 생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sup>43)</sup>



진천읍에서 광혜원 방향으로 향하다가 이월농공단지 근처에 있는 신탐굴(1882~1924)의 거주지는 현재 신탐(1810~1888) 고택으로 지정되어 있다.<sup>44)</sup> 신탐굴이 바로 신탐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계 진위대에 근무 중 1907년 군대해산으로 낙향하여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보명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이 고택이 위치한 지역은 진천의 왜가리 번식지로도 유명한 곳이고, 평산 신씨 세거지로 임진왜란 시 비변사 당상이었던

43) 진천 농다리의 경우 고속도로변에 크게 안내문을 세워 고속도로를 지나 다니며 그곳이 농다리임을 인지할 수 있어 농다리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4)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826.

신잡(1541~1609)의 사당인 노은영당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고택은 개인이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시 안채와 부속건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                |
|------------------|----------------|
|                  |                |
| <p>신헌 고택 설명문</p> | <p>신팔균 거주지</p> |

진천에서 청주방향으로 새로 개통된 국도 17번을 타고 내려오다, 문백면 방면의 진출로로 나가면 청주방향과 구곡방향으로 갈라지는 구 17번 국도 변 삼거리에 높은 기단위에 세워진 비가 보인다. 한봉수(1883~1972) 의병장이 이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이곳을 지나가는 일본헌병 시마자키를 처단한 장소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측이 죽은 시마자키의 순국비를 세웠고, 해방 후에는 1977년에 문백면 주민들이 한봉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바로 옆에 보다 크게 향일의거비를 세웠다. 의병장이 처단한 헌병의 순직비와 그를 처단한 의병장의 의거비가 함께 서있는 역사의 명암이 대비되는 현장으로 감회를 갖게 하는 특기한 장소이다. 그러나 안내문이 너무 낡아 전혀 관리되지 않았으며,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바로 앞 교통표지판에 안내문구를 놓아야 할 것이다.



#### 4. 청원

【손병희 생가, 한봉수 사당·묘, 한봉수 의병활동지, 신채호 유적지, 조동식 묘·생가지·출생지, 조동식 봉화햇불만세운동지】

청원은 본래 청주에 속했던 지역으로 해방 직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1946년 분리되었다. 그러나 청주와 밀접한 생활권으로 20여 년 전인 1994년부터 행정기관의 주도로 통합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2012년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었고,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sup>45)</sup>

이곳은 독립운동사에 두각을 나타내는 손병희 생가지와 신채호의 유적지가 있다. 손병희(1861~1922) 생가지<sup>46)</sup>는 ‘손병희 선생 유허지’로 대대적으로 성역화 되어, 생가·동상·사당 및 유물전시관과 입구에 관광해설안내소와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 유물전시관에서 가족사진을 보며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 방정환(1899~1931)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손병희 선생 유허지에는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어 매우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이었다. 다만 생가지의 원 위치가 다소 맞지 않으므로, 안내문에 그러한 설명을 기입할 필요가 있다.<sup>47)</sup>

45) <통합청주시 청주시-청원군 주민투표로 통합 성공>, 《조선일보》, 2012. 6. 28일자.

46) 청원군 북이면 금암2리 385-2.

4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8, 165쪽.

한편, 넉넉하게 조성된 주차장과 잔디밭 등지에 시민들이 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며 쉬고 있어, 독립운동가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있는 모습에서 과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적지를 너무 경건하거나 무게감 있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처럼 다소 가볍게 접근하여 누구나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활용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봉수(1883~1972) 의병장이 전과를 거두었던 현장 초정리로 가는 길 중간 ‘세교’에 한봉수의 생가지와 묘, 사당이 있다. 생가지<sup>48)</sup>는 현재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곳에서 청주방향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묘소와 사당, 동상이 조성되어 한봉수 의병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sup>49)</sup> 이곳 앞 들에는 주말농장이 개설되어 주말에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주차장에서 쉬기도 하고, 사당을 둘러보기도 하면서 한봉수 의병장 덕에 편히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청원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초정리 온천일 것이다. 탄산수로 유명한 곳이다. 바로 초정리 온천 근처 540번 지방도로 일대가 한봉수 의병장이 일본군 우편물을 습격하여 전과를 거둔 지역이다.<sup>50)</sup> 그러나 한봉수가 매복 하였다는 ‘한봉수 바위’는 표

48)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197.

49)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86-4.

50)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0 일대.

지판이나 안내판이 없어 찾을 수가 없었다. 소소하지만 관심 있는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에 간략한 표지판이라도 있다면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다.



초정리를 뒤로 하고 이티고개를 넘어 낭성면 쪽으로 약 20여km를 향하면 신채호(1880~1936)의 묘소가 위치한다.<sup>51)</sup> 이곳은 대대적으로 정비되어 묘, 사당, 동상, 전시관 등이 설치되었다. 신채호는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나 이곳 낭성면 귀래리에서 성장하였고, 사후 이곳에 모셔졌다. 오후 6시를 넘긴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전시관 문이 닫혀있어 잘 활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그 일대가 ‘고드미 녹색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왕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동식(1873~1949) 선생의 묘소를 찾았다.<sup>52)</sup>

조동식의 묘는 조치원과 청주의 경계상에 위치하고 근처에 한국교원대학교가 위치하며, 바로 앞에 커다란 표지판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동식은 3·1운동기 최초의 봉화횃불만세운동 창안자로서, 그로 인해 청주·충북 일대는 물론이고 충남 연기와 경기도 일원에 까지 봉화횃불만세운동이 퍼져 나갔다. 3·1운동사에 매우 의미 있는

51)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305.

52)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13.

족적을 남긴 것이다.

현재 묘소 앞에는 594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도로변에서 약 50여m 들어간 낮은 등성이에 묘가 위치하고 있다.



조동식의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판결문에 거주지가 대성리(臺城里) 혹은 태성리(台城里)로 기록되어 있어 묘소가 위치한 현재의 태성리 ‘요골’ 일대로 추정된다. 판결문 상에 ‘대(臺)’자와 ‘태(台)’자를 혼용한 것은 ‘臺’자의 약자체가 ‘台’자 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이곳의 지명이 본래 ‘태성리(台城里)’였는지 ‘대성리(臺城里)’였는지 알 수 없으나, ‘臺’자와 ‘台’자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판결문에 같이 쓰였던 것으로 보아, 대성리와 태성리는 동일 지역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약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 지명이 태성리 이므로 거주지는 이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출생지는 판결문에는 기록이 없으나 수형인명부를 통해 확인해 보면 강내면 산단리(山壇里)로 기록되어 있고,<sup>53)</sup> 묘소의 비문에도 산단리 고심동(高深洞)에서 태어났다고 새겨져 있다. 산단리는 태성리 바로 옆 동네이고 고심동은 현재 ‘고심이’라고 불

53) 「수형인명부」(CJA0017320), 국가기록원 소장.

리는 풍양 조씨 최초의 입향지이다.<sup>54)</sup> 한때 이 ‘고심이’에 약 40여 호가 살 정도로 풍양 조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었던 곳이라고 한다.<sup>55)</sup> 따라서 출생지는 산단리 ‘고심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곳에는 아직도 풍양 조씨 일가가 몇 호 거주하고 있다. 그 앞에는 지방도로 507번이 지나가고 신탄진 기점 21km, 부강기점 8km 지점이다. 현재에는 인근에 호남고속철도 ‘학천터널’ 공사가 한창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매우 분주하다.



조동식 출생지 : 산단리 고심이 마을

조동식이 봉화를 지피고 횃불을 치켜 올렸던 만세운동의 현장은 판결기록에 의하면 ‘대성리(臺城里) 산 정상에서 동민 수십명과 함께 횃불을 붙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sup>56)</sup>라고 되어 있어 그간 그 현장이 조동식의 거주지 인근의 어느 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비정해 왔다.

한편, 인근 궁현리와 저산리에 걸쳐있는 ‘은적산’도 그 대상지로서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은적산은 해발 206m로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고려시대부터 공주·연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받아 청주로 이어주는 봉수대가 있었고, 돌로 쌓은 저산성이 있어 여러

54) 청원군 강내면 산단리 76번지 일대.

55) 이곳에 입향한 풍양 조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낙향하였다고 한다. 산단리 주민 조충구 선생님의 증언.

56) 「조동식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6. 14.

모로 봉화횃불만세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적지일 가능성이 있다.<sup>57)</sup> 조동식이 피체 직후 가장 처음 기록된 재판 문서에 ‘옛 봉화고변(烽火告變)의 예(例)를 모방하여 산 정상에서 불을 지피고 만세를 고창하였다’<sup>58)</sup>라고 되어 있어, 운동의 현장이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라면 그 개연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은적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철저한 사료조사와 고증을 통해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조동식의 묘소는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큰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의 양 옆에 공장 함석벽과 콘테이너 박스 등은 조동식의 의거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어서, 조속히 합의를 통해 조동식 선생의 뜻이 잘 들어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표지판도 한쪽 면이 훼손되어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묘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동식 선생에 대한 거주지와 생가지 그리고 봉화횃불만세운동의 연원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 패널의

57) 현재 봉수대 터에는 단군전이 위치하고 있는데, 해방이후 1946년 은적산 봉수대 터에 단군성전을 세우면서 봉수대 흔적은 사라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보안을 통해 1974년 단군전을 완성하였다고 한다.(청원군 문화관광-관광명소-명산여행 참조. <http://tour.puru.net>)

58) 「조동식 판결문」, 공주지방법원, 1919. 4. 19.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산단리 고심이에 풍양 조씨 세거지의 표시와 함께 조동식의 출생지임을 간략한 표지석이나 또는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상 현지 답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충북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대체로 각 자치단체 별로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잘 복원되었거나 보존되고 있으며, 주차장·화장실·관리사 등 주변 부대시설들도 갖추어져 있어 방문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이에 현장이 우범화 되거나 슬럼화 되지 않고 정갈하면서도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 있다. 그리고 위치를 찾는데 있어서도 도로변에 교통표식 등이 잘 되어 있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청주의 3·1공원이나 우시장 터, 각지의 시장터 등 충북 각지의 3·1운동 현장과 신간회 및 학생운동·청년운동의 현장 등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이 사적지들은 대부분 현장의 위치 정도만 확인되어 있고, 별다른 시설이 남아있지 않아 본고의 논지 전개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지에서 느꼈던 지방자치단체의 열의와 관심, 그리고 인상적인 관리 상태는 일단 뒤로하고, 향후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가지 위주로 보존되어 있다. 생가지가 정비되어 복원되고

그 현장에 사당과 기념비, 동상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탄군 생가지와 홍명희 거주지를 제외한 손병희 생가지, 이상설 생가지, 신채호 주거지, 연병호 생가지 등이 모두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생가지들은 유적지 내에 소규모의 전시관이 갖추어져 대략의 개요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시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데 비석 형태의 기념물이 대부분이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도 비가 있었고, 독립운동가의 생가지·거주지 등에도 비가 있었고, 묘소에도 비가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이전이든 최근이든 역사적 사실의 전달 매개체는 비석이었다. 오랫동안 기록을 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획일화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려 들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독립운동의 현장에 설명문이 부족하였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난 각지의 시장터 등지에는 간략한 안내문이나 표식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간회·학생운동·청년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도시의 개발로 모두 변모되면서 그 흔적조차 알 수 없게 된 곳이 많았다. 이러한 지역에 조그만한 표식이나 안내판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일반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였다. 특히 생가지나 거주지 등은 그 실제 현장에 위치하다 보니 일반의 접근이 그리 쉬운 편이 아니었다. 독립운동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히 사전 조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알지 않는 이상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적지가 없었다.

다섯째, 매우 중요한 사적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 최초로 창안된 봉화횃불만세운동의 개념이나 이를 알릴 수 있는 사적이 아직 명확히 않은 것이다. 횃불을 이용한 만세운동은 아우내서 유관순도 매봉산에 올라 인근 마을에 알렸던 것으로 3·1운동 시 대중을 모으고 널리 알리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독립운동사에 특기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고증이 없다. 조속히 학

술용역이나 연구를 통해 고증하고, 나아가 전시관과 기념관의 건립이 절실하다.

이상의 사항들은 비단 충북지역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편차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적지 활용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하면 되지만,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 - 사적지 자체의 위치를 옮기거나, 생가지를 전혀 다른 곳에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원한 문제로 자칫 방치해 버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 IV.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 1. 사적지의 활용 가치 : 왜 중요한가?

독립운동 사적지는 주 5일제의 정착과 창의적 체험학습의 확대 등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일반에게 알려 주는 ‘역사의 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각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역사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특히 근대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9년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교과 중심의 일률적 교육과 학습을 보완하고자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학습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당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었던 교육과정은 2013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에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창의활동 및 체험학습을 필수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일명 '창체')이라는 교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되어 주 1회 이상 수업하고 있다. 또한 학년 간 이수 목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 1~2학년 272시간, 3~4학년 204시간, 4~5학년 204시간으로 초등학교 전 과정 동안 680시간을 달성해야 한다. 활동 분야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가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토요일·휴일 대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박물관·전시관·기념관, 사적지·유적지·문화재, 미술·연극 감상, 농촌마을체험 등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창의적 체험학습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기간 동안 '에듀팟'이라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되고 관리된다.<sup>59)</sup> 이 기록들, 포트폴리오는 대학입학 시 수시·면접·특기자 선발·특수 전형 등에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박물관 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맞춘 운영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12년 '박물관·미술관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sup>60)</sup>, 발빠른 광역시도는 시·도 교육의 목표를 아예 '창의지성교육'으로 설정하고, 창의체험 학습이 가능한 박물관, 미술관, 사적지·유적지, 문화재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다.<sup>61)</sup>

이러한 창의적 체험학습의 여파와 체험형 또는 참여형 관광의 경향으로 전국 지방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지역 마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 코스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각종 걷기길 개발<sup>62)</sup>, 축제의 개발 등을 통해

59) 에듀팟, 창의적체험학습 종합지원시스템, <http://edupot.go.kr>.

60) 2012년 (사)한국박물관협회의 주관으로 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개발, 콘테스트, 개발 컨설팅, 교육 및 멘토 양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등 창의적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1) 경기도교육청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참조.

<http://edumodoo.goe.go.kr>.

수요자 층을 끌어오는데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보다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잘 알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서대문의 서대문형무소, 군산의 근대건축, 장성의 홍길동, 강릉의 관동8경과 허균, 안동의 독립운동가, 천안의 유관순, 통영의 이순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우선,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대표 아이টে임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다음, 그 아이টে임을 활용하여 전시관, 기념관, 박물관, 도보길, 축제, 체험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특성에 맞는 각종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민들이 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독립운동 사적지는 바로 근대기 지역의 역사를 대변하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자원이 된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의 중심 대상으로, 역사·문화 기행의 대상으로,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의를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에게 알리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2.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 기억과 기념의 경계에서

독립운동과 연관된 곳이라 하더라도 모든 장소와 관련 사적을 기억할 수 없다. 또 기억하는 모든 것을 기념화하고 사적지화 할 수도 없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는 지역의 독립운동사

---

62) 최근 지역마다 아라메길(서산), 북한산 둘레길(서울), 호국충절의 길(홍성), 안산둘레길(서대문) 등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성에 맞게끔 지역 내 합의와 공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정체성에 뿌리를 둔 기억과 기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63)</sup>

우선 3·1운동 사적지를 살펴보면, 음성·청원·괴산·보은·영동 지역에는 그 운동의 사실을 전하는 안내문이나 표석 등이 22여 개소 설치 되어있으나 제천·보은·단양·증평 지역에는 3·1운동이 전개 되었으나 대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다.<sup>64)</sup> 3·1운동의 특성상 주로 장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장터나, 특수하게 봉화햇불만세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네 야산 등지가 그 대상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운동은 충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독립운동이고 관련 유공자도 180여 명 이상이 된다. 또한 봉화햇불만세운동은 이곳 충북 청원이 최초의 창안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억의 복구가 시급하며, 이는 지역의 집단적 기억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 기억의 단편들을 되살리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념시설이 필요하다. 청주의 3·1공원이 대표적인 정도이다. 이에 충북지역 내 60여 개소<sup>65)</sup>에 달하는 3·1운동의 현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기념방식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단,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기존 방식의 거대한 비석이나 투박한 표지석보다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알림판 같은 것이 좋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주변에 당시의 운동현황과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여 함께 게시한다면 더욱 알찬 기념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봉화햇불만세운동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의 창안지임을 감안한다면 철저한 학술적 고증작업을 거친 후에 체계적인 기념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속도를 늦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63) 김양식, 「충북지역 근현대 역사기념시설 분포와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1, 294~295쪽.

64) 김양식, 위의 논문,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1, 283~284쪽.

6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8, 765쪽.

서 아이템을 선점하는 낭패를 겪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sup>66)</sup>

의병전쟁 관련 사적은 제천을 중심으로 다수 남아 있다. 제천 자양영당 유적지와 시내의 사령부 터·순국선열묘역(의병골)·박약재, 충주의 전투 현장, 청주의 한봉수 의병장의 전투지와 사당 등이 있다. 특히 제천은 다수의 사적지를 활용하여 의병을 테마로 ‘제천의병제’라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67)</sup> 이러한 기억의 전승은 충북지역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의병의 강렬한 국권회복의 의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제작하여 의병전시관이나 의병관련 안내판 등의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정체성을 대내외에 보다 확고히 하고 의병하면 제천이 떠오르도록 하는 도시마케팅의 좋은 사례이다. 또한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향후 미래 산업동력으로 충북에서 주목받는 ‘한방’과 ‘제천의병제’를 연계시켜 신 성장동력의 문화화를 시도하고 있다.<sup>68)</sup>

---

66) 최근 천안시는 유관순 생가 소재지인 병천면 일대에 총 200여 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호국충절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기본 설계를 마쳤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사업은 ‘햇불 도보길’ 사업으로 5개 코스, 총 연장길이 10.5km의 도보 탐방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 아이템이 3·1운동 때 지켰던 햇불이다. 박경목, 「천안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충청문화연구』9,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2, 126~127쪽.

67) 2012년 ‘제천의병제’의 경우 9. 22~23일 이틀간 가장행렬, 토크콘서트, 학술세미나 등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함께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68) 김양식, 「장소마케팅을 통한 충북이미지 제고 방안」, 《충북Focus》29, 충북발전연구원, 2011, 18쪽.



한편, 충주 지역에는 10여 개 소의 의병 전투 현장이 있는데, 산고개 마루나 현재에는 개략적인 위치만 확인되어, 그 현장 모두를 되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안내문이 있는 충주성터 충주감영 앞이나, 목계나루터 입구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여 간략한 설명문 정도 배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발간될 충주시지(忠州市誌) 등에는 그 정확한 위치나 주소를 기록하여 비록 기념시설은 없더라도 기록으로는 기억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괴산·진천·청원 일대에는 한봉수 의병의 전투지가 분포하고 있다. 각 지역 전투현장에는 기념비와 안내문 혹은 사당이 조성되어 있어 한봉수의 활약과 흔적을 잘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념시설에 비해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 기념시설만으로는 기억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적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단양지역에도 전기의병 유인석의 호좌의진과 후기의병 이강년의진이 활동한 지역으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어 7개소의 전투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련 표시나 안내문 등 현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단양에서의 의병사는 이제 잊혀진 기억이 되었다. 사적지를 온전히 기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잊혀진 기억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학술 조사를 진행하여 이 지역의 의병사를 정립해야 한다.<sup>69)</sup>

69) 박결순, 「단양의 독립운동가 유적현황과 활용방안」, 《중원문화연구》16,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1 참조.

신간회·학생운동·청년운동의 사적지는 20여 개소가 확인되나 도시개발로 빌딩이 들어서거나, 학교 현장에는 일부 관련 기념비가 서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곳을 돌아보며 당시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학생과 청년인 젊은층들의 독립운동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 이 지역 청년·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연극, 음악 등의 공연 형식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볼 만 하다.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지를 복원하고, 경쟁하듯 사당을 건립하고, 기념비·공적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괴산의 홍범식, 증평의 연병호, 진천의 한봉수·이상설, 청원의 손병희·신채호의 생각지나 묘소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유적지화 한 경우이다.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추어진 공간에 각종 기념물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기억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작용도 있을 것이다.

사적지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면, 번듯하게 잘 정리는 되어 있지만 정작 접근하기 어렵고, 사당이나 비석의 형태는 청소년들 눈에는 그저 고리타분한 무엇인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각 생각지에 독립운동가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은 어느 곳이나 같은 모양으로 천편일률적이고, 추모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 졌지만 정작 방문객들은 웬지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념의 방식이 너무 근엄하고 무겁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기념을 위해서는 사당으로서의 존엄한 턱을 조금 낮추고 입구나 내부에 알리고자 하는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나 관련 자료 등을 보충해 놓아 오는 이들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 일환으로 일부 사적지에는 소규모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전시물 관리와 교체문제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 3. 스토리텔링화와 콘텐츠화

#### 1) 스토리텔링

독립운동사의 대중화에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이 어렵고, 사안이 복잡하며 현재 우리들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먼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그나마 곳곳에 있는 사적지와 전시관·기념관 등지의 시설을 통해 독립운동사는 대중과 접촉되고 있다. 특히 사적지의 활용문제는 전자의 의식을 불식시키고, 독립운동사의 대중화와 지역의 관광 소비유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역마다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 사적지 자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적지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의 담론이 함께 기억되고 기념되어야만 활용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일이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들의 몫이라면, 이것을 향유하고 서로 서로 회자하며 관심을 갖는 일은 지역 시민들의 몫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만남의 기회나, 역사와 시민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 -기념물이나 시설- 의 설치와 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삼각 구도에서 상호간에 목적인 바 -전문가 : 독립운동사 연구·대중화, 시민 : 역사적·문화적 지식 배양 및 향유, 자치단체 : 지역 관광 유치·활성화- 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는 그것을 가능케 할 기술적 수단이 필요하다.

그 일련의 노력 과정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적 재생산 양식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콘텐츠(contents) 2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다. 이 스토리텔

링의 중요성은 이야기 하나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례들에서 증명된다. 독일 로렐라이 언덕의 로렐라이의 이야기, 덴마크 코펜하겐 왕궁 앞 바닷가의 인어공주 상, 벨지움 브뤼셀의 오줌 누는 아이,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독일의 찰리 체크 포인트 등이 좋은 사례이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끌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하여 재생산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그 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가고 싶은 도시로, 그리고 자부심 있는 도시로 변모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은 물론 인구의 유입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단체 등에서는 효과적인 홍보 정책으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sup>70)</sup>

이러한 형편에 비추어 본다면 독립운동 사적지도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소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스토리텔링화는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명운이 걸린 필수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가.

첫째, 각 독립운동 사적지와 지역의 문화현상 간에 연계 될 수 있

70) 이러한 경향으로 정기적인 공모전도 진행되고 있다.

예시 :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http://st.cjculture.org>)

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천에서 격전을 벌인 의병항쟁의 이야기가 현재에는 ‘제천의병제’의 축제로 승화되었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충주는 그 여파로 무술로 특화된 도시가 되었다...등의 식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제천을 찾는 이로 하여금 의병전쟁 사적지(자양영당, 박약재, 의병골)-의림지-제천시내 등을 연계하여 돌아보게끔 하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탄금대-수안보 등을 돌아볼 수 있게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결은 도시관광(urban tourism)의 측면에서도 보면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역사, 문화, 축제, 휴식, 쇼핑 등등-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sup>71)</sup>

둘째, 지역의 정서와 지역민의 기질, 문화적 특징이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스토리텔링화 하고, 그 사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를 남의 것이 아닌 바로 자기 것, 자기화 한 것으로 만들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이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위 ‘문화원형’에 대한 진지한 지역민들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족이나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본래의 모습에 해당하는 지역만의 문화’인 ‘문화원형’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거나 혹은 온전한 형태로 복원해야만 탄탄한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sup>72)</sup> 충북지역 독립운동이라는 ‘문화원형’은 궁극적으로 지역이 한 단계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 인문학적인 기반을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71) 이주형 외, 『문화와 관광』, 기문사, 2006, 69~77쪽.

72) 2001년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민족문화원형의 발굴 조사 정리’로서 ‘문화원형’은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문화원형’에 대해서는 박상환, 「일상적 문화의 기억과 역사성찰-문화원형 모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4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192쪽 참조.

학술심포지엄·세미나, 개별적인 연구의 진작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 일정한 결과로 창출된 것이라야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는 독립운동사와 지역의 예술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탐구가 활기를 띠고, 지역 문화원이나 향토사학회,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학술심포지엄·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인문학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sup>73)</sup>

이러한 상황에 유의해서 각 사적의 유형별로 이야기의 주제 몇 가지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단순한 예시일 뿐 정교한 이야기는 지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 져야 한다.

**【의병전쟁 사적지】**

- 친일 기자 맥켄지도 통곡한 항전의 땅 제천  
의병 정기 땅에 묻혀 한방으로 거듭나다
- 의병의 최대 격전지 충주, 세계무술의 성지로 돌아오다
- 한봉수도 전투 후 쉬고 간 초정리 광천 온천

**【3·1운동 사적지】**

- 괴산장터 홍명희도 먹고 힘낸 올갱이국
- 아버지는 순절, 아들은 만세운동, 괴산은 호국의 고장
- 횡불의 기치로 만세운동, 분리된 청원·청주 합쳤네

**【독립운동가 사적지】**

- 형만한 아우 없다... 있다... 연병환·연병호 4형제 이야기.
-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 신팔군 독립의 화신이 되어 날아오다. 왜가리 동네.
- 이상설이 건넸던 농다리, 다리에 그의 독립염원 서려 지금도 튼튼해.

73) <문화도시 청주, 정체성 확립 필요, 임승빈 교수, 지역예술발전 위한 세미나서 주장>, 《충청타임즈》, 2013. 3. 28일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가 재미있게, 쉽게,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로 재탄생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즉, 독립운동가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통해 한층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 2) 콘텐츠<sup>74)</sup>

콘텐츠는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로,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타고 흐르는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 원래는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차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종래 디지털 통신에서는 글자나 음성이 주류였으나 디지털 혁명으로 방송도 디지털화되면서 통신, 컴퓨터, 방송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콘텐츠는 이 같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CD롬 등 문자, 소리, 영상 등 융합된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말한다.<sup>75)</sup>

이 정의에 의하면, 콘텐츠는 데이터베이스(DB)화 된 정보이며, 콘텐츠산업은 그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의미한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콘텐츠는 미디어[정보전달 매체]나 플랫폼[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말이나 문장 또는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내용 혹은 문자·영상·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하고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상품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문화와 콘텐츠의 개념이 결합되어 ‘문화콘텐츠’라는 합성어가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sup>76)</sup> 2001년에

74) 박경목, 「근대사 자료의 콘텐츠 활용방안」,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참조.

75) 위키백과 참조.

76) 유명한, 「역사인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장화황후 활용 OSMU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14, 한국일러스트학회, 2011, 144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sup>77)</sup>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2000년을 전후로 대중화·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다만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sup>78)</sup>이라는 견해와 ‘인류의 문화적 요소, 즉 문화기호들의 연쇄조합이 창출한 결과물이 다양한 채널의 멀티미디어를 통해 유통·소비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매체들. 방송·음악·영화·애니메이션·모바일·게임·출판·만화·캐릭터·테마파크·축제와이벤트·뮤지컬 등’<sup>79)</sup>이라는 견해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의미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곧 ‘문화콘텐츠’는 문화의 원형을 원천 재료로 하는 문화가공체인 것이며, 그 가공의 결과물로 방송·음악·영화·출판 등등의 형태로 재생산된 것이다.

살펴보고자 하는 ‘충북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또한 문화원형을 원천 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지역 사람들이 창조한 전통과 역사성을 원천 바탕으로 하며, 현대 기술 문명을 통해 새로운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로 재생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근과 보급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지방정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콘텐츠화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충북지역도 앞서 살펴본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이 지역의 모든 독립운동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 사적지, 유적, 유물, 자료들 모두도 콘텐츠의 대상으로 놓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콘텐츠화 하는 것은 무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충북의 독

---

77)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78)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 161쪽.

79)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20쪽.

립운동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때문에 콘텐츠로의 가공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대한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 그들과 관련된 독립운동 사적지들 가운데 무엇을 콘텐츠의 대상으로 선별해야 하는가? 어떤 특성을 지닌 자료를 콘텐츠화 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우선 콘텐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대중성을 지닌 것.

둘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타 콘텐츠와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독창성을 지닌 것.

셋째, 누구에게나 교훈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 이어야 한다.<sup>80)</sup>

이 규칙에 유념하여 콘텐츠를 ‘문화원형’ → ‘거시콘텐츠’ → ‘미시콘텐츠’의 3단계로 선별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원형’에 접근하여 보면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는 다음과 같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독립운동사의 특징을 가진다.

|                  |   |
|------------------|---|
| 문<br>화<br>원<br>형 | ① 의병전쟁의 격전지<br>② 3·1운동의 활발한 참여<br>③ 봉화횃불만세운동의 창안지 |
|------------------|---|

위의 문화원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특정한 이야기(스토리텔링)가 문화기호학적 측면에서 보면 거시콘텐츠의 대상이다.<sup>81)</sup> 거시콘텐츠란

80) 박경목, 「근대사 자료의 콘텐츠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1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73쪽.

81) ‘문화기호학’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원형을 연구하고, 멀티미디어 출판 산업을 육성하고, 지리정보와 미디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시키는 분석 방법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승국, 「축제

콘텐츠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즐거움과 정보 그리고 광고 등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콘텐츠를 말한다.<sup>82)</sup> 문화원형에 수반한 충북 지역 독립운동사의 거시콘텐츠 대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sup>83)</sup>

|                   |  |
|-------------------|--|
| 거 시<br>콘텐츠<br>대 상 | ① 의병장 유인석, 한봉수, 제천 7의사<br>② 민족대표 33인과 충북인의 장터 3·1운동<br>③ 조동식과 봉화햇불만세운동 |
|-------------------|--|

위 인물과 사건들은 독립운동의 기억들을 재구성 하는 원천의 자료들로서 역사적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의 결과물로서 현재 일정한 공간과 건축 또는 기념물 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적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독립운동 사적지는 ‘문화기억’의 관점으로 볼 때 콘텐츠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기억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기집단의 정체성을 현재에 재구성 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라는 단절된 시공간을 ‘이야기’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때 연속적 연결을 가능케 하는 서사구조, 즉 기억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고안된 사회적 행위와 연출을 ‘축제, 의례, 상징물, 기념비, 묘지, 사원, 박물관’ 등 이라고 한다.<sup>84)</sup> 따라서 사적지 또한 이에 속한 하나의 문화적 연출 결과물인 것이다. 그 대표적

기획을 위한 문화기호학적 방법론’, 『인문콘텐츠』6, 인문콘텐츠학회, 2005 참조.

82) 백승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391쪽.

83) 본고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대상은 일부 예시일 뿐이다. 면밀한 콘텐츠 대상 선별작업은 철저한 학술적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84) ‘문화기억’에 대해서는 박상환김 회, 「문화기억의 철학적 성찰과 문화콘텐츠 연구-한국 근대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4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참조.

결과물을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                 |  |
|-----------------|--|
| 미시<br>콘텐츠<br>대상 | ① 자양영당, 박약재, 아사봉, 기념비<br>② 생가, 사당, 동상, 묘<br>③ 안내문, 묘 |
|-----------------|--|





바로 위 예시의 사적지들이 문화적으로 고안된 사회적 행위와 연출에 해당된다. 결국 여기에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반영되면서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기억의 주체이자 매체인 ‘공간[장소]’과 기억의 상징인 ‘건축물[생가, 기념비, 기념탑, 묘지, 상징물,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등]<sup>85)</sup>들로, 콘텐츠라는 새로운 매체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위 ① ② ③번의 미시콘텐츠들을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하면 된다. 이를 유형별 문화콘텐츠와 서대문형무소 활용사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콘텐츠의 유형과 활용 방식】

| 유형 | 문화콘텐츠         | 서대문형무소 활용사례 비교  |
|----|---------------|---|
| 축제 | 제천의병제<br>무술대회 |  |

85) 박상환·김희, 「문화기억의 철학적 성찰과 문화콘텐츠 연구-한국 근대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4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91~197쪽.

|           |   |  |
|-----------|---|--|
|           |   |   |
| <p>전시</p> | <p>햇불만세운동 전시관<br/>또는 기념관</p>  |   |
| <p>공연</p> | <p>의병전쟁 상황극<br/>판소리<br/>연극<br/>퍼포먼스<br/>인형극</p>   |   |
| <p>교육</p> | <p>체험학습 프로그램<br/>개발, 운영<br/>체험학습지 개발, 보급<br/>교육용 CD 타이틀<br/>개발, 보급<br/>초·중·고등학교<br/>수업(안) 개발, 보급</p> <p>성인 대상 지역사<br/>교양 강좌</p> |  |

|                                  |   |   |
|----------------------------------|---|---|
| <p>영<br/>상</p>                   | <p>다큐멘터리<br/>영 화<br/>드 라 마<br/>계 임<br/>음 악</p>            |    |
| <p>도<br/>시<br/>디<br/>자<br/>인</p> | <p>가로등 디자인<br/>안내판, 설명문 디자인<br/>농수산 특산물 포장<br/>박스 디자인</p> |   |
| <p>출<br/>판</p>                   | <p>도 서<br/>관광안내책자</p>                                     |   |
| <p>캐<br/>릭<br/>터</p>             | <p>캐릭터<br/>C-<br/>기념상품</p>                                |  |

#### 4. 사적지 활용 제시

현재 전국각지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역 인적자원의 열의 등에 따라 활용의 편차가 있다. 사적지에 박물관까지 건립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sup>86)</sup>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를 통해 성역화 한 사례<sup>87)</sup>, 그리고 별반 이용 없이 단순 관리만 하는 사례 등이다.

이러한 사적지 이용 형태에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 가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용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활용의 방식에는 3S 원칙(Small size, Steady, Sustainable development : 작은 규모로, 꾸준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과 3E 방향(Experience, Education, Exhibition : 체험, 교육, 전시)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내 각급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다.<sup>88)</sup>

8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홍주성 역사관,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등.

87) 손병희 유적지, 신채호 생가지,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 생가지 등.

88)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 계    |
|-----|--------|--------|-------|--------|
| 청주시 | 60개 교  | 35개 교  | 29개 교 | 124개 교 |
| 충주시 | 38개 교  | 17개 교  | 11개 교 | 66개 교  |
| 제천시 | 24개 교  | 13개 교  | 7개 교  | 44개 교  |
| 청원군 | 28개 교  | 12개 교  | 10개 교 | 50개 교  |
| 보은군 | 15개 교  | 5개 교   | 4개 교  | 24개 교  |
| 옥천군 | 13개 교  | 5개 교   | 3개 교  | 21개 교  |
| 영동군 | 15개 교  | 9개 교   | 5개 교  | 29개 교  |
| 증평군 | 4개 교   | 3개 교   | 3개 교  | 10개 교  |
| 진천군 | 15개 교  | 5개 교   | 4개 교  | 24개 교  |
| 괴산군 | 15개 교  | 10개 교  | 2개 교  | 27개 교  |
| 음성군 | 21개 교  | 9개 교   | 3개 교  | 33개 교  |
| 단양군 | 11개 교  | 7개 교   | 3개 교  | 21개 교  |
| 총 계 | 259개 교 | 130개 교 | 84개 교 | 473개 교 |

※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2013. 5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황 : 초등학교 5,895개 교, 중학교 3,162개 교,  
고등학교 2,303개 교, 총 11,360개 교.

첫째, 충북지역 내 각 지역에 위치한 각종의 사적지들에 대한 관리·운영방식에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을 융합하는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바로 ‘1학교 1사적지 결연’ 방식이다. 사적지가 위치한 지역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청소년들은 창의적 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하에 일정시간 이상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1주일에 1회 학급별로, 혹은 학년별로 돌아가며 학교 주변에 위치한 결연 사적지를 방문하여 청소하고, 주변의 잡풀도 정리하면서 봉사활동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지와 관련된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및 그들의 활약상 등을 공부하면서 자율활동의 시간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삼삼오오 결연된 사적지에 관련된 보다 심도 깊은 학습활동을 통해 동아리 활동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학예연구사들의 도움을 통해 문화재 관리, 박물관 학예 분야 등과 연계된 진로활동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한참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적지를 기반으로 한 결연 시스템은 창의적 체험학습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학교(교육청)-보훈지청(보훈청)의 3개 기관이 연합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둘째,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으로 각 학교별로 내고장 탐방 창의체험학습의 날을 지정하여 ‘내고장 탐방’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탐방코스에는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몇몇 자치단체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역사·문화유적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sup>89)</sup> 나아가 이를 통해 역사 특기교육, 역사특성화 교육, 현충시설 활성화로 교육청이나 보훈청

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체험학습지의 개발 배포이다. 위 프로그램들로 사적지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그저 안내문 한번 보고 만다면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별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쉽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각 사적지 별로 간단하게 1~2장 정도의 보고서 형식의 체험학습지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면 된다. 또한 개발 방식은 독립기념관 교육문화부의 도움이나, 혹은 충북 지역 내 박물관 학예사들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역 학교의 사회교과서에 지역 내 독립운동사와 주요 사적지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 별로 해당 부분의 내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이에 그 부분에 해당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사적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89) <서대문구, 내고장 탐방>, 《티브로드》, 2013. 4. 9일자.

<마포구, 내고장 탐방 사업 실시>, 《마포투데이》, 2010. 4. 12일자.

다음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이다.

첫째, 제천 의병, 괴산 3·1운동 장터, 청원 봉화뿔불 등과 같은 특이한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티투어와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 명칭을 외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오는 의병 전투길 체험’, ‘역사길 따라 호국길 따라’, ‘아빠랑 함께하는 우리 아이 근대사 체험’ 등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족할 만한 제목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면 좋을 듯하다.

둘째, 지역에 잘 가꾸어진 손병희 유허지, 신채호 유적지, 한봉수 유적지, 이상설 생가 등지에서 관련 독립운동가 감상문 대회, 그림 그리기, 창작 동요 만들기 또는 부르기 등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주목을 끄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상당의 예산, 행정력 등이 소요되므로 각 지자체 별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독립운동사를 소재로 한 공연이나 연극, 음악제 등을 지역 내 문화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념일이나 추모제 등에 이러한 창작물을 무대에 올려 지역의 자생적인 독립운동 문화 그루터기를 형성하는 것이다.<sup>90)</sup>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한 주요 인사나, 특정 계기 행사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격조 높은 공연물이 될 것이다.

넷째,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나 또는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의병전적지 순례’ 또는 ‘호국보훈의 길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본다. 일선 군 장병들에게는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정훈교육 시간이 있다. 요즘 군대는 정훈교육도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탐방 제안으로 군과 협력한다면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 된다.

90) 안성의 경우 31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안성 31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지역의 민간 연극단체와 개발하여 주말마다 공연한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즐겁게 시민과 함께하는 사적지의 활용 방안이다.

요즘 주말의 여가 문화 중에 가장 전망의 대상은 아마 캠핑문화일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나 각종 경험담을 통해서나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야외 캠핑은 매우 각광 받는 소재이다. 특히 각 지방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도농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삼기도 한다.<sup>91)</sup>

이에 첫째, 충북지역 각 지에 주차장과 음수대,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몇 군데의 사적지를 주말 밤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여 캠핑장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sup>92)</sup> 사적지라고 하여 무조건 경건하고 엄숙하게 여겨야만 그 의미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편히 와서 그 역사적 내용과 의미를 보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느끼고 인식한다면 사적지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이 소망하였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과 시민들의 모습이 오히려 사적지의 운영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캠프에 독립운동을 접목한 약간의 프로그램을 가미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손병희 생가 체험, 나도 독립운동가’,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독립운동 체험’ 등의 프로그램 명칭으로도 운영해 볼 수 있다.

둘째, 사적지와 지역의 특산 또는 먹거리를 연계시켜 상품화 시켜보자. 요즘은 각 지역마다 공동의 농수산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브랜드 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유래와 정서를 담은 이야기가 담긴 브랜드를 만들어, 이를 특산과 먹거리에 적용하여 보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괴산 만세 울

---

91) 주요 사례 : 서산시 부석면의 폐교된 부남분교를 활용하여 교실 건물은 ‘서해 미술관’으로, 운동장은 오토 캠핑장으로 활용.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 ‘버드랜드’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체험 관광에 기여. ‘서해 미술관’은 이 지역 출신 미술가가 운영.

[www.birdland.co.kr/camping](http://www.birdland.co.kr/camping)참조.

92)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유사한 사례로 독립기념관 내에도 캠핑장이 있다.

갱이국, 괴산 만세 대학찰옥수수, 제천 하늘뜨레<sup>93)</sup> 의병 한방약초 등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의 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이다.

충북 각지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각종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괴산의 괴강관광단지, 김시민 장군 사당과 그 앞의 수려한 경관, 청원 조정리의 탄산 온천과 약수, 청주의 상당산성, 보은의 속리산, 옥천의 정지용 문학관, 제천의 의림지, 충주의 탄금대·수안보, 진천의 농다리, 단양의 구담삼봉 등등의 자원과 인근 사적지를 연계하여 체험하고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의 주체 등 여러 사안이 있으므로, 가장 손쉽게 지자체의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위와 같은 코스들을 배치하여 운행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봉화햇불만세운동’에 관한 정밀한 학술고증과 이를 통한 장기적인 사적지 활용 계획(안)이 필요하다. 봉화와 햇불을 이용한 3·1운동이 청원에서 조동식에 의해 발원되었고, 이것이 충북·충남·경기도 일원의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이제 익히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위 III장에서 제기한 문제처럼 아직 그 운동의 현상이 어디인지, 그것을 창안한 조동식 선생의 거주지와 출생지가 대략은 파악되었으나 아직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묘소 입구 주변이 공장이나 컨테이너 거처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제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증과 선양은 이데올로기의 논쟁에서 약간 비껴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3·1운동사에 중요한 운동 방법론을 제시한 ‘봉화햇불만세운동’에 대해 체계적인 고증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정확한 위치와 당시 운동의 전개과정, 참여자 등을 밝혀 ‘봉화햇불만세운동’의 인문학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반 위에

93)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2012. 10월 제정.

‘봉화촛불만세운동’을 청원 지역의 문화원형으로 삼고, 당시에 전개하였던 운동을 다양한 이야기 형태[스토리텔링]와 다양한 정보 매체[콘텐츠]로 재생산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전국 3·1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3·1운동 전시관(혹은 박물관) 이나 또는 3·1봉화촛불만세운동 기념관의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청원 혹은 청주 하면 3·1봉화촛불만세운동 창안지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V. 맺음말

충북지역 독립운동사는 운동의 분야만 해도 29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제 까지 발굴된 42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각 방면에서 국내외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지역 내 160여 개 소의 관련 사적지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멸실과 훼손된 곳이 많았다.

한편, 공훈 받은 독립운동가 외에 수형기록 카드 검토를 통해 독립운동가로 추정되는 인사 69명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어떤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충북출신 인물이다. 그 어떤 혐의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 일제가 독립운동가에 씌웠던 죄명이었다. 특히 이 기록을 통해 고강순, 민금봉, 박소순, 박신삼 4명의 충북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였고, 또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연병호의 수형기록 카드가 연병학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검토와 발굴을 통해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는 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60여 개 소의 확인된 사적지들 가운데 그 위치에 관련 시설, 기념물이 남아있는 몇 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현황

과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제천과 괴산, 증평, 진천, 청원 일대를 돌아보았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적지들이 대체로 정갈하고 쾌적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고 시민들도 편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다만 사적지 보존의 방식과 기념물의 일률적인 형태, 설명문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 중요한 사적지의 미확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운동 사적지는 주 5일제와 교육계의 창의적 체험학습 정착으로 현재 지역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관광자원, 도시마케팅 요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의 요소로서 역할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과 기념해야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 적극적인 활용 대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활용을 위해 먼저 일반 대중에게 독립운동사와 그 사적지를 쉽게 접근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화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재생산 양식을 통해 지역의 독립운동사는 보다 일상생활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의 적극적인 활용 방법론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관광자원으로서 역할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의 일환으로 크게 각급 학교와의 연계 사업 네 가지, 외부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네 가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화촛불만세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한 학술적 고증과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활용 방법론은 사실 누구나 약간의 노력과 상호간의 협력으로 언제든지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처음 시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역사적 사명을 태만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공자든, 행정가든, 시민이든, 선생이든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고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나아가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 2013. 5. 2, 심사시작: 2013. 5. 14, 심사완료: 2013. 5. 28.]

주제어 : 사적지, 문화원형, 창의적 체험학습,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기억, 기념

## 【참고문헌】

### 1. 연구서

- 박걸순, 『독립운동계의 3만 정순만』, 경인문화사, 2013.  
박걸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 2. 연구논문

- 강엽심, 「어윤희(1880~1961)의 민족사상과 독립운동」, 『3·1운동기  
민중항쟁과 서대문형무소』, 개관11주년기념학술심포지엄집, 서  
대문형무소역사관, 2009.  
김양식, 「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 《충북 Issue&Trend》7,  
충북발전연구원, 2012.  
\_\_\_\_\_, 「장소마케팅을 통한 충북이미지 제고 방안」, 《충북Focus》29,  
충북발전연구원, 2011.  
\_\_\_\_\_, 「충북지역 근현대 역사기념시설 분포와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1.  
\_\_\_\_\_, 「충북 향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충북  
Issue&Trend》6, 충북발전연구원, 2011.  
\_\_\_\_\_, 「충북지역 근대종교문화유산 현황과 특성」, 《충북발전연  
구원 연구보고서》, 2010.  
\_\_\_\_\_, 「충북지역 역사기념시설 현황과 개선방향」, 《충북발전연  
구원 연구보고서》, 2007 등.  
박걸순, 「단양의 독립운동가 유적현황과 활용방안」, 《중원문화연구》16,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1.  
\_\_\_\_\_,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15,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_\_\_\_\_, 「신필균의 생애와 민족운동」, 《역사와 담론》57, 호서사학회,  
2010.

- \_\_\_\_\_, 「홍범식 순국 100년, 그 역사적 기억과 기념」, 《괴산문화》18, 괴산향토사연구회, 2010.
- \_\_\_\_\_, 「3.1운동공판기록을 통해 본 충북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사상」, 《중원문화연구》13,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9.
- \_\_\_\_\_, 「이상설의 민족운동과 후인 논찬」, 《중원문화연구》10,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6.
- \_\_\_\_\_, 「일제하 충북지방의 독립운동과 그 유산」, 《충북학》7, 충북학연구소, 2005.
- 박경목, 「근대사 자료의 콘텐츠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1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 \_\_\_\_\_, 「천안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창의적 체험 학습 관광활성화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9,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2.
- 박상환·김 희, 「문화기억의 철학적 성찰과 문화콘텐츠 연구-한국 근대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4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박상환, 「일상적 문화의 기억과 역사성찰-문화원형 모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43,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백승국, 「축제기획을 위한 문화기호학적 방법론」, 『인문콘텐츠』6, 인문콘텐츠학회, 2005.
- \_\_\_\_\_,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 『기호학연구』15, 한국기호학회, 2004.
- 유명의, 「역사인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장화황후 활용 OSMU 사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14, 한국일러스트학회, 2011.

### 3. 보고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8.
-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

### 4. 자료

- 「고강순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42. 12. 28.
- 「삼택녹지조 적화공작사건 검거 건」, 경기도 경찰부문서, 1934. 8. 31.
- 「수형인명부」(CJA0017320), 국가기록원 소장.
- 「어윤희 등 2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4. 11.
- 「이수희 등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0. 4. 5.
- 「조동식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 6. 14.
- 「조동식 판결문」, 공주지방법원, 1919. 4. 19.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9, 국사편찬위원회, 1992년 참조.
- 연병환·연병호선생 선양사업회(연창흠 집필), 『애국지사 연병환·연병호』, 증평군, 2013 참조.

### 5. 신문

- 《내일신문》, 2013. 3. 4일자.
- 《뉴시스》, 2009. 3. 1일자, 2010. 8. 26일자, 2012. 9. 21일자.
- 《동양일보》, 2011. 2. 28일자.
- 《마포투데이》, 2010. 4. 12일자.
- 《아시아뉴스통신》, 2013. 3. 1일자.
- 《연합뉴스》, 2008. 2. 27일자, 2010. 3. 1일자, 2012. 6. 28일자.
- 《중외일보》, 1930. 2. 26일자.
- 《충북일보》, 2013. 3. 8일자.
- 《충청타임즈》. 2013. 2. 27일자, 2013. 3. 28일자.
- 《티브로드》, 2013. 4. 9일자.

## 6.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http://edumodoo.goe.go.kr>

국가보훈처 공훈록, <http://www.mpva.go.kr>

버드랜드, [www.birdland.co.kr](http://www.birdland.co.kr)

에듀팟, 창의적체험학습 종합지원시스템, <http://edupot.go.kr>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http://st.cjculture.org>

청원군 문화관광-관광명소-명산여행, <http://tour.puru.net>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ABSTRACT>

##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dependent Activists and Historical Sites of Independent Movements of Chungbuk Area

Park, Kyung-Mok

This study discovered new independent activists in Chungbuk area and examined the preservation status of independent movement sites in Chungbuk by field visit together with the consideration of utilization of those sites.

First of all, 69 new independent activists in Chungbuk were discovered by analyzing prison record analysis. There were engaged in 3·1 Movement, educational movement and independent movement. It is recommended to study further on their activities specifically to expand the scope of independent movement history of Chungbuk.

It was followed by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sites of independent movement. The status of preservation was overall good. But, some historical sites have insufficient explanation, and the monument tended to be uniform with birthplace and tombstone. And the movement using a torch suggested by Jo, Dong-Sik of Chungbuk Cheongwon needs more clarification as the accurate location was not verified.

Finally, on the use of historical sites, it demonstrates there is wide need on creative on-the-spot experience study. But, as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all sites in Chungbuk, a humanistic

investigation on cultural original form for memory and commemoration must be mad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make a storytelling on historical sites, and culture contents so that everyone can access and tell easily. After such preliminary work, it needs to activate utilization in the local society in cooperation with school and education office in-local. To attract external tourists, it needs to open programs including experience program, performance, music concert and programs with military unit.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the public on historical sites, it needs to develop camping using parking lot, promotional policy in line with local special products and food and allied tour development with attractive resources.

As such, it would develop identity of Chungbuk area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local society.

Keywords : creative on-the-spot experience study, cultural original form, historical sites, storytelling, culture content, memory, commemoration